ISSN 3022-8514(Online)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22호 (2024.11.22)

- **이 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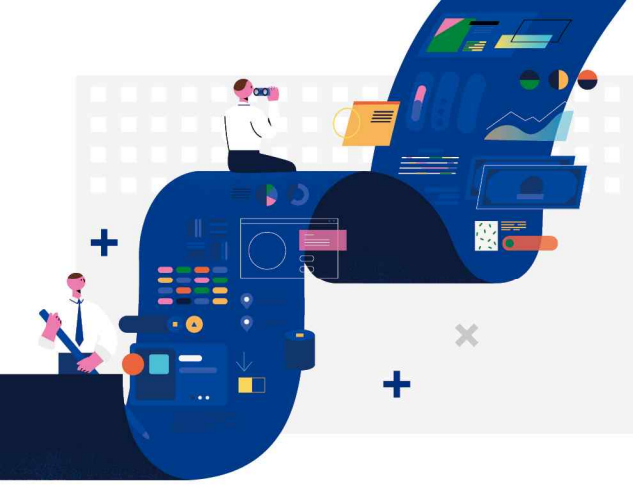
  (산업)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경제와 인천의 우주산업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22호 (2024.11.22)

Cotents

Ⅰ. 이 슈

(산업)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경제와 인천의 우주산업 ····· 1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 10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12월 2일 종료 ····· 11

(교통) 친환경차 및 심야시간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 11

(경제) 12월 1일까지 국산 수산물·김장재료 최대 50% 할인 판매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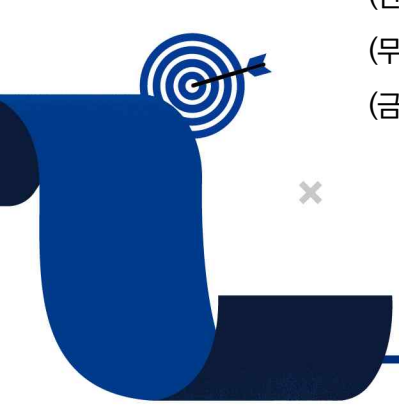
(산업)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공동인수제도' 도입 ····· 12

(경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시작 ····· 13

(산업) 정부,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및 「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 ····· 13

(무역) 2025년부터 일본·호주·뉴질랜드 수출 시 원산지증명 간소화 ····· 14

(금융) 국토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 ·····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유광민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센터 책임연구원

산업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경제와 인천의 우주산업

#우주경제 #우주산업 #우주항공청 #미래항공우주교육센터

○ 과거 정부·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글로벌 우주산업은 최근 들어 중소·벤처기업의 참여와 민간 부문 투자를 통한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주산업에 활용되는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연계되는 '우주경제(Space Economy)' 개념이 등장[1)]

- '뉴 스페이스'란 Virgin Galactic(우주관광 서비스), SpaceX(로켓발사, 우주탐사 및 위성인터넷) 등과 같은 민간기업이 우주개발 및 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상업적 우주활동을 주도하는 일련의 새로운 우주산업의 흐름을 의미
  - 최근 우주탐사·개발 분야에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국가기관·연구소의 일회성 협력기관으로 우주 분야에 합류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
  - 전 세계 '24년 1분기 궤도 위성 발사 63회 중 32회를 민간기업인 SpaceX가 실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Orbit Fab의 인공위성 연료 재충전 서비스, Intuitive Machine의 달 착륙선, Astrobotic Tech.의 달 탐사선 등 모든 영역에서 민간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활발
- 우주자원의 활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우주경제 개념이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 정부·공공 주도의 우주산업과 달리 우주탐사·연구 등에서 경제적·사회적 수익의 창출을 강조
  - OECD(2012)에 따르면 '우주경제'란 우주의 탐사·연구·이해·관리·활용 과정에서 인간에게 가치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활동과 자원의 활용을 의미

[Orbit Fab 인공위성 연료충전서비스]

[Intuitive Machines 달 착륙선]

[Astrobotic Tech. 달 탐사선]

* 자료:각 기업 홈페이지 발췌

〔그림 1〕 민간기업의 우주탐사 및 개발 참여 사례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합과 민간 부문의 신기술 개발 등으로 인해 우주산업의 기술혁신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2040년 글로벌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생물학적·물리적·기술적 영역을 통합하여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이 우주산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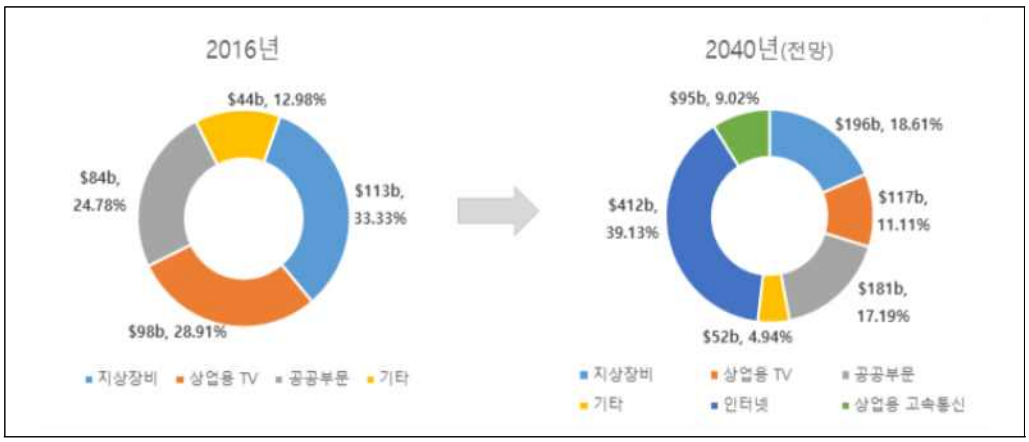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2024), ESA(2023) 등을 참고하여 작성.

융합됨에 따라 우주탐사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발사체 재사용 △소형발사체 기술개발 △통신·IT기술 융합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우주기술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

- 재료과학, 3D프린팅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우주 탐사선의 제조 비용 감소 및 경량화를 통해 탐사선 발사 비용을 크게 절감하였으며, 이는 우주산업의 소형위성 개수·활용도·경제성을 크게 향상
- SpaceX, Blue Origin 등의 민간기업이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1,000kg 미만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소형 발사체의 발사 비용이 더욱 감소하고 우주탐사의 경제성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간기업의 우주개발 진출이 증가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
- 소형위성의 제작 및 발사 비용 감소는 SpaceX, OneWeb, Telesat Canada, 삼성, Boeing 등 우주분야 민간기업이 대규모 광대역 위성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위성 레이저통신 기술의 개발 이후 위성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상용화에 기여

- 2016년 약 3,390억 달러 수준이었던 글로벌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2040년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부문의 비중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2)]

- 2040년에는 △우주 인터넷 시장(4,120억 달러, 39.1%) △상업용 고속통신(950억 달러, 9.0%) 등 민간에서 활용되는 신규 부문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 2016년 24.8%에서 2040년에는 17.2%로 감소할 전망



* 자료:Morgan Stanley 참고 및 재구성

〔그림 2〕 2022년 세계 우주경제 시장 규모

○ **우주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주산업 분야의 주요 선진국들은 우주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독점해 왔던 우주개발 영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우주산업 육성에 박차**

- 주요국은 우주탐사를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닌 새로운 영토 발굴과 지식 탐구 기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인류의 미래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 분야로 인식

- Euroconsult(2023) 따르면 글로벌 정부 우주개발 투자 규모는 2023년 1,170억 달러에서 2032년 1,380억

2) Morgan Stan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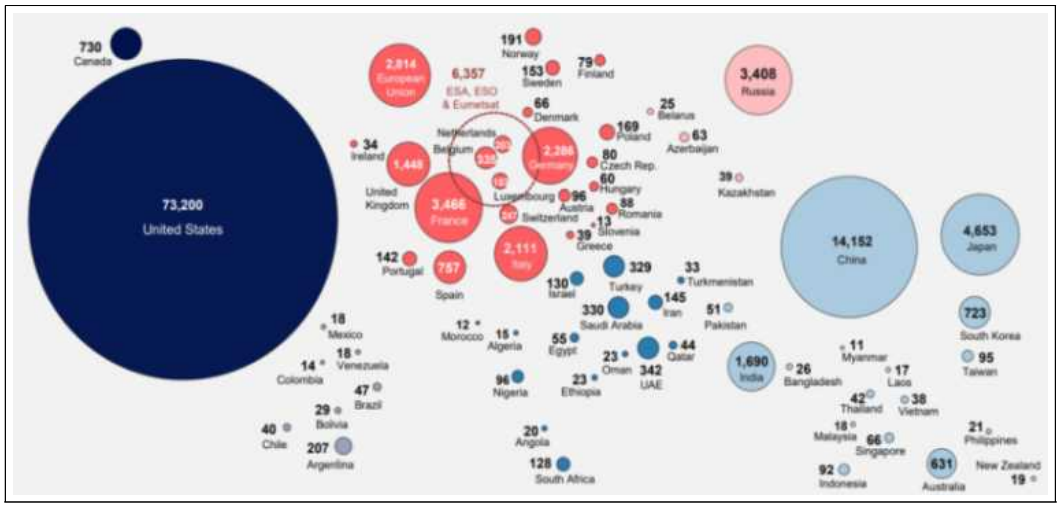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기준 미국의 우주개발 투자[3]는 약 732억 달러로 전세계 우주개발 투자액의 6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142억 달러) △일본(47억 달러) △프랑스(35억 달러) △러시아(34억 달러) 등을 포함한 5개국이 전 세계 우주개발 관련 분야 정부지출의 약 84%를 차지

- 강력한 우주산업 선도국인 미국을 뒤따라 중국 정부의 우주산업 투자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주산업의 경제성이 향상됨에 따라 신규 국가의 시장 진출도 점차 확대[4]

- 상위 5개국을 제외하고도 약 20개국에서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우주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우주 프로그램을 시작한 △필리핀 △르완다 △코스타리카 등을 포함하여 약 70개 국가가 활발한 우주개발 프로젝트 추진 중

- 주요국에서는 SpaceX 등과 같은 민간 우주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민간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 △우주기술 관련 비즈니스 창출 투자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확대



* 자료:Euroconsult(2023) 및 NOVASPACE(2023.12)

〔그림 4〕 글로벌 우주개발 투자 추이 및 주요 선진국 우주개발투자액

○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국가가 주도하던 산업에서 벗어나 점차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한 신규시장 확대와 산업생태계 형성은 미흡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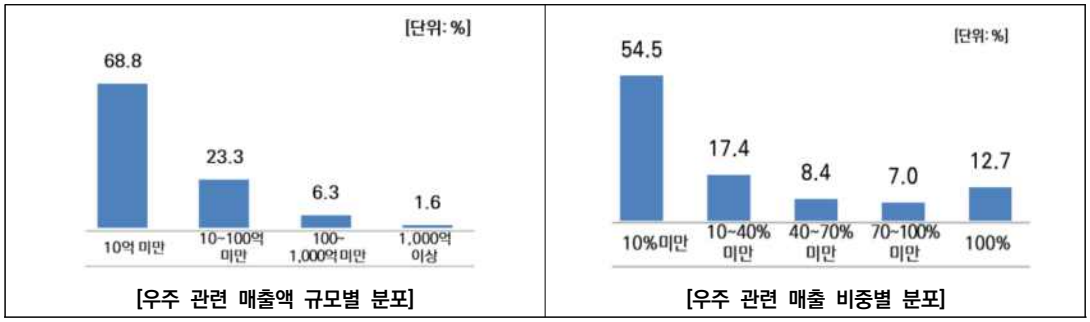
-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2021년도 3.19조 원으로 전년 대비 0.2조 원 감소하였으며, 세계 우주시장 대비 1% 수준에 불과('20년도 약 480조 원)

- Euroconsult(2023)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정부의 우주산업 투자액은 미국의 0.9% 수준인 약 7.23억 달러로 경제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

3) 미국의 대표적인 우주 관련 사업으로는 2017년 시작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존재. 동 프로그램은 NASA, 한국, 유럽,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는 유인 우주탐사 계획.

4) Signe and Dooley(2023)에 따르면 한국, 이스라엘 등 경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라오스,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UAE 등 다양한 대륙의 여러 국가에서 우주개발 투자를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주산업 민간기업의 68.8%(304개)가 우주 부문 매출액 10억 미만이었으며, 우주 부문 매출액이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미만인 기업이 총기업 수의 54.5%를 차지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12)

〔그림 4〕 국내 우주기업 매출 현황(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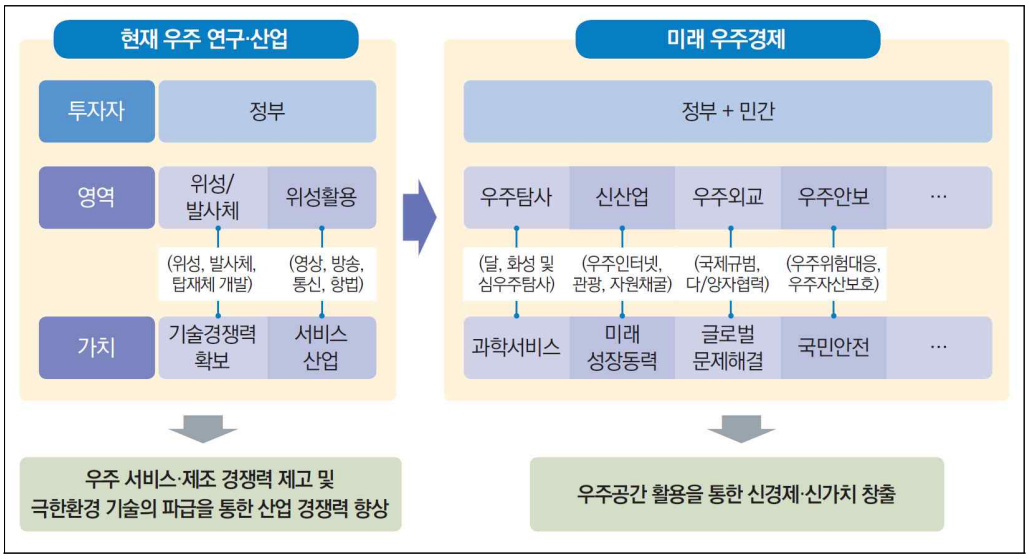
○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우주경제' 개념을 제시하고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과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3~'27)」을 발표

- 2022년 11월 정부는 5년 내 달 탐사용 발사체 엔진 독자 개발, 2032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하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제안
  - 로드맵은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 등 6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우주산업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추진[5)]
- 2022년 12월 발표된 기본계획에서는 '우주경제'를 OECD(2012)의 정의와 같이 '우주를 ①탐험, 이해, 관리,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②가치와 혜택을 창출하고 제공하는 ③모든 활동과 자원의 사용'으로 정의하고[6)], 확장된 우주정책 개념을 제시
  - 기존의 공공 위성·발사체 중심의 개발·제작 산업과 일부 민간투자 위성방송통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우주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던 우주정책은 우주경제 시대 도래에 따라 우주탐사뿐만 아니라 신산업,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영역이 확장
  - 이에 앞으로의 우주정책은 우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국가종합정책으로서의 의의를 지니며, 우주공간을 활용하여 R&D·국방·외교·사회 등 다양한 부문과 어우러지는 신경제·신가치 창출을 목표로 설정
  - 기본계획은 로드맵의 실현을 위해 우주경제 기반 구축 및 첨단 우주기술 확보하여 ①우주탐사 확대 ②우주수송 완성 ③우주산업 창출 ④우주안보 확립 ⑤우주과학 확장 등을 실현하겠다는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을 설정
- 한편, 정부는 2024년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 우주산업 육성 및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정책으로써

5) 동 로드맵의 추진에 따라 2024년 5월「우주항공청 특별법」제정에 이어 2024년 9월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
6) ①탐험, 이해, 관리, 활용하는 과정 : 위성, 발사체 및 탐사선 등에 대한 개발·제작·생산 등과 관련된 활동, ②가치·혜택을 창출·제공 : 우주를 통해 확보한 정보 등에 대한 활용과 이를 통한 부가가치 서비스, ③활동 및 자원의 사용 : 정부·민간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양성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을 추진 중

- 정부는 2022년 12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대전(연구·인재) △경남(위성) △전남(발사체) 등 3개 지역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선정하였으며, 2024년 2월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안)」을 발표
- 전남 발사체 특구는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산업생태계 조성을, 경남 위성 특구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위성 개발·제조 기반 집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전 연구·인재 특구에서는 산학연 협력 및 인재양성 역량을 연계·결집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12)

〔그림 5〕 우주정책 범위의 확장

○ **인천시는 2016년 산학융합지구 지정을 계기로 우주분야 탐사 연구를 지원해 왔으며, 2022년 우주경제 개념 확산과 정부 우주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 선정 이후 '미래 우주탐사 및 자원활용 기술연구센터'를 개소하는 등 우주정책 확대**

- 인천시는 2016년 인천산학융합지구 지정 이후 2021년 4월까지 항공우주 분야의 신규 청년일자리 260개 창출 및 14개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인천산학융합원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체계로 재편
  - 2021년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하대학교, 인천산학융합원 등과 '산학융합지구 2.0' 협약을 체결하고, 산학 협력·혁신을 통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관련 사업융합 생태계 구축을 통해 항공우주분야 육성을 추진
- 2022년에는 인천광역시와 인하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항공우주분야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미래 우주분야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우주전문 청년인력의 양성을 진행
  - 인하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인하 IST-NASA 우주탐사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글로벌 우주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22~`26) 국비 50억 원 확보

- 현재 우주탐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우주탐사 로봇 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미래우주탐사 및 우주자원 활용 기술 연구센터'를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설치하여 운영 중

- 한편 시는 타 시도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발사체, 위성체, 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차별화된 '우주탐사' 분야의 선도를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인천에 필요한 데이터를 인공위성을 통해 직접 확보하기 위한 인천형 인공위성 개발을 추진

○ **우주산업은 미국 등 선도 국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므로, 이를 인천시의 산업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지역 산업정책 방향성 모색이 필요**

- 우주산업 육성은 인천시 산업 부문의 확장과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일관된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지역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

  - 인천시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및 인하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주 전문인력 양성 및 융합기술 연구에 상대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남(발사체), 경남(인공위성), 대전(인력양성)과 차별화한 우주탐사 분야를 인천시 우주산업의 특화 방향으로 설정[7)]

- 우주산업은 ①우주 전문·우수인력 ②기술 간 융합 ③글로벌 협력이 중요한 분야이므로, 우주분야 산업생태계의 확장을 위해서는 △인력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 △우주산업 관련 기업 R&D 지원 △민간 우주기업 유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

  - 우주산업의 후발주자인 인천시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주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므로, 지역 대학·항공우주산학융합원 등 현재 보유 중인 인력양성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산업 고급 인력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이들을 실무형 인재로 키워낼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촉진이 요구

  - 우주산업의 경우 소재·기계·전자·통신·운항 등 다수의 고도화된 기술이 융합·활용되는 만큼 기업의 R&D·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높은 초기 비용과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혁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금융지원 및 세제 감면 등 혜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경남, 부산, 대전 등 타 지역과의 협업을 통해 관내 기업에게 인공위성 개발 기회 제공을 추진하고, 항만·항공 등 인천의 우수한 입지 여건을 활용하여 우주산업 관련 우수 민간기업 유치 및 국내·외 공공·민간과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

7) 경인일보(2023).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화장품 #기타 화장품 #의약품

○ 2024년 10월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은 수주 확대와 해외시장 점유율 증가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수출액 증가를 기록[8)]

- 화장품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6.0% 증가한 1,037백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2024년 하반기 이후 전년동월비 수출액 증가세가 지속
  - 글로벌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인디브랜드의 인기가 이어지며 화장품 수출액의 실적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중국 시장에서는 소비환경 악화에 따른 부진이 지속되며 주요 시장별 편차가 확대
- 바이오헬스 부문은 △위탁생산(CMO) 대규모 수주 지속 △미국·유럽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 확대 △중남미 등 신규시장 진출 등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호재가 계속되며 4개월째 수출 증가세
  - 바이오헬스 부문의 10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8.5% 증가한 1,236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2024년 4월부터 보합세
  - 의약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5.3% 증가, 전월대비 2.4% 감소한 785백만 달러로, 2024년 6월 이후 4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두 자릿수 증가

〔표 1〕 국내 바이오산업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

구분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화장품 (증감률)	777 (0.5)	854 (25.9)	879 (14.4)	780 (5.8)	832 (29.6)	824 (18.0)	926 (12.2)	1,037 (36.0)
바이오헬스 (증감률)	1,317 (9.9)	1,241 (21.0)	1,292 (18.7)	1,217 (-6.1)	1,240 (29.0)	1,279 (38.8)	1,236 (9.9)	1,236 (18.5)
의약품 (증감률)	826 (13.0)	794 (29.6)	820 (34.1)	743 (-5.4)	794 (41.7)	864 (73.9)	804 (19.7)	785 (25.3)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동향(2024.11.01)'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8)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동향(2024.11.01)'.

○ **(전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산업은 생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 증가세는 유지

- **(생산지수)** 2024년 9월 국내 화장품 관련 생산지수는 기준치(100)를 밑도는 부진한 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약품 생산지수는 `24년 5월 이후 소폭 하락
  - 화장품 관련 전국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0.8% 감소,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한 88.7로, `22년 6월 기준치(100) 밑으로 떨어진 이후 완만한 감소세 지속
  - 의약품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6.3%, 전년동월대비 21.0% 증가한 156.8로 생산 경기 활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22년 이후 지속되어 온 지수 증가세가 2024년 5월을 기점으로 소폭 둔화
- **(품목별 수출액)** 2024년 10월 바이오산업 수출 총액[9]은 전년동월대비 31.3%, 전월대비 5.9% 증가하며 지난 7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품목별 수출 경기는 차이
  -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6.3%, 전월대비 13.2% 증가한 103.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6-8월 잠시 주춤했던 수출 증가세[가 지속
  - 기타 화장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0% 증가, 전월대비 0.2% 감소하였으며,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5.3% 증가, 전월대비 2.4% 감소하여 보합 수준을 유지

○ **(인천)** 인천시의 바이오산업은 전국 추세와 다르게 생산 및 수출 모두 양호한 흐름 지속

- **(생산지수)** 2024년 9월 기준 화장품 관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한 111.9, 의약품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4.3% 증가한 342.4를 기록하며 바이오 생산 경기가 안정적인 흐름
- **(품목별 수출액)** `24년 10월 기준 인천시 바이오산업의 총수출액은 13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증가하며, 완만한 성장세 유지
  - 화장품 및 기타 화장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70.5%, 116.9% 크게 증가하며, 2024년 10월 바이오산업 총 수출액 증가를 견인
  - 의약품 수출액은 2024년 들어 꾸준히 전년동월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10월 기준 전월대비 2.4% 감소한 약 4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다소 둔화

〔표 2〕 국내 바이오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

지역	항목	`24.06	`24.07	`24.08 (p)	`24.09 (p)	`23.09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화학물질 등 제조업	89.5	92.9	89.4	88.7	87.3	-0.8	1.6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79.6	83.6	79.7	80.2	77.8	0.6	3.1
	의약품 제조업	156.0	163.1	147.5	156.8	129.6	6.3	21.0
인천	화학물질 등 제조업	115.4	125.9	111.7	111.9	103.6	0.2	8.0
	의약품 제조업	327.8	304.3	293.2	342.4	159.8	16.8	114.3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의 자료를 이용함. 인천지역 자료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9) 화장품(MTI2273), 기타 화장품(MTI2279), 의약품(MTI2262)의 수출액을 더한 합계값을 의미.

[화장품(MTI2273)]

[기타 화장품(MTI2279)]

[의약품(MTI226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바이오 품목별 수출 동향(2024.10)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4.10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117,667	5.9	190,610	22.1	72,943	22,246	34.3	24,563	23.5	2,317
자동차	17,726	5.3	79,357	6.6	61,631	1,085	-13.2	8,727	12.1	7,642
기계장비	54,255	16.0	62,251	2.5	7,997	6,271	37.8	4,778	13.8	-1,494
바이오-의약	7,899	1.6	6,792	37.7	-1,107	704	-21.1	4,700	44.4	3,996
바이오-화장품	1,776	-0.8	10,050	37.1	8,274	31	9.8	2,703	69.5	2,671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경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12월 2일 종료

#국세청

○ 오는 12월 2일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기한 내에 정해진 세액을 납부할 필요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인 11월을 맞아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 등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
-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12월 2일까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세액을 납부할 필요
  - 중간예납세액은 '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로 산정되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인 12월 3일부터 2025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가능

교통 친환경차 및 심야시간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및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위해 올해 종료될 예정었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감면(50%) 제도'를 3년 연장하여 2027년까지 감면제도를 유지할 계획
  -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동결로 인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을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
-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 분산 및 물류비용 경감을 위해 2000년 도입된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의 이용비율 구간 및 할인율 등의 조건을 유지하며 2년 연장할 예정
-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 가능

경제 12월 1일까지 국산 수산물·김장재료 최대 50% 할인 판매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가 김장철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까지 '코리아 수산페스타' 할인 행사를 개최

- 금번 행사는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 등 주요 김장재료와 명태·고등어·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해 진행되며, 행사기간 동안 대형·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50%의 할인 제공
  - 행사 참여업체는 GS리테일,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오프라인 18곳과 11번가,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온라인 23곳을 포함한 총 41곳
  - 업체별 세부 할인 품목 및 할인율 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기간	온라인	오프라인
11.13~11.26	-	GS리테일, 세이브존, 메가마트, 우리마트, 서원유통
11.14~11.27	컬리, 11번가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마트맥스, 농협하나로마트, 수협유통, 더제이마켓, 올가홀푸드, 아이쿱생협, 행복중심생협
11.15~11.28	SSG닷컴	이마트
11.18~11.24	-	한살림생협
11.18~12.01	쿠팡,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롯데백화점,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쇼핑, 공영홈쇼핑, 수협쇼핑, 우체국쇼핑, 농협몰, 오아시스, 비비수산, 훈훈수산, 내돈내산, SK스토아, LG헬로비전, 라포테이블, 넛지헬스케어, 공유어장	두레생협

산업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공동인수제도' 도입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시장 상인들을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여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를 개선

* 공동인수제도란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

-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시의 피해 규모가 커 화재보험 가입은 어려운 상황
- 이에 행안부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금융위는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
  -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되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

경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시작

#국세청

○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2023년도 연말정산 결과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산출·확인이 가능
  - 미리보기를 통해서는 2024년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및 절세혜택 꿀팁을 제공
- 국세청은 아직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 및 내·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아직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하여 맞춤형 안내도 제공할 계획
  - 맞춤형 안내에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기부금 등 주요 7개 공제·감면 항목에 대한 안내를 포함
  -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 요건 및 필요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 가능

산업 정부,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및 「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

○ 지난 14일 정부는 결혼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약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

- 정부는 낮은 재구매 가능성과 신고·등록 없이 운영이 가능한 업종 특징으로 인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결혼서비스 시장의 기능 회복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번 제도 마련을 추진
- 동 지원방안을 통해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결혼서비스법」 제정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부당계약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지원할 계획
  - 2025년부터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결혼식장 및 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를 실시하고, 법 제정 이후에는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 공개 지침을 마련·시행할 예정
  - 2025년 1분기까지 계약 시 포함 서비스의 세부 가격과 각 품목별·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과 추가비용 부과 제한 조항 등을 포함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해 2025년 상반기부터는 결혼서비스 제공 업체의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공개하고, 하반기부터는 품목별 환불·위약금 부과 실태 및 만족도 정보 역시 제공할 계획

무역 2025년부터 일본·호주·뉴질랜드 수출 시 원산지증명 간소화

#기획재정부

○ 2025년 1월부터는 국내기업이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3국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ASEAN) 국가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2022년 2월 발효)

- 현행 RCEP에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제도'가 시행 중
- 금번 합의를 통해 기존의 2가지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안 이외에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추가
  - RCEP 회원국 중 일본·호주·뉴질랜드 간에는 수출자 및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가 이미 이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이들 3개국과의 신규 이행에 합의
- 이에 따라 기존에 우리나라와의 FTA에 따라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호주 및 뉴질랜드 외에,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기관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왔던 국내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금융 국토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 정부는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PF(Project Financing) : 대상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 동 방안을 통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20%)을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산업구조를 선진화하여 시장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할 계획
  - 이를 위해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금융업권별 PF 대출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를 정비하여 PF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리츠에 우수 입지 공공택지의 매입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PF 산업구조 건전성 강화 및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추진

구분	주요 추진 사항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	•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 마련 • 인센티브 등을 통한 자본 확충 지원	•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자본 확충 유도 • 금융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부동산 PF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	•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 강화 • 책임준공, 수수료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내실화
역량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	• 리츠를 통한 개발·운영 전문 디벨로퍼 육성 •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 활성화	• 우수 디벨로퍼 인증체계 마련

참고 자료

- OECD, 「OECD Handbook on Measuring the Space Economy」, 2012.02.27.
- European Space Agency(ESA), "What is the Space Economy?", 2019.10.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SPREC 글로벌 이슈리포트 2024.04」, 2024.04.29.
- Orbit Fab 홈페이지, www.orbitfab.com
- Intuitive Machines 홈페이지, www.intuitivemachines.com
- Astrobotic 홈페이지, www.astrobotic.com
- Morgan Stanley, "The New Space Economy".
- Euroconsult, 「Government Space Programs, 23th edition」, 2023.
- NOVASPACE, "New historic high for government space spending mostly driven by defense expenditures", 2023.12.19.
- Landry Signé·Hanna Dooley, "How space exploration is fuel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23.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2022.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우주산업 실태조사」, 2023.12.
- 관계부처합동,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안)」, 2024.03.
- 인천광역시. "인천시, 산학융합 통한 항공우주분야 육성 박차", 2021.04.20.
- 인천광역시, "인천시, 항공산업을 넘어 미래우주산업 육성한다", 2022.04.12.
- 인천광역시, "인천시, 인하대와 맞손..."우주 핵심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2022.07.26.
- 경인일보, "인천 '우주 탐사' 특화도시로…우주산업 활성화 날개펴는 인천시", 2023.09.14.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인사업자 149만 명, 내달 2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 국세청, 2024.11.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2024.11.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김장재료 등 국산 수산물 '최대 반값' 할인…12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 2024.11.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장 상인 화재보험 가입 수월해진다…'공동인수제도' 도입",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2024.11.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 2024.11.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예식장·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연내 '결혼서비스법' 제정",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 2024.11.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일본 수출 때 원산지 증명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 2024.11.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선진국 수준까지…사업 안정화 기대", 국토교통부, 2024.11.14.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22호(2024.11.22)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4년 11월 22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